

December
2019

12

데살로니가전후서
시편

풍성한 삶



본 교재는 날마다 솟는 샘물 2018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포어로도 번역되어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위로의 편지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쉽지 않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성장하고 싶은데,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며, 우리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제시하시며, 복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 주십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후서와 시편 105편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지길 바라며 (살전 1~3장)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사역을 시작했지만, 유대인의 위협으로 인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행 17:1~10). 이후 바울은 고린도로 옮기게 됐고, 이곳에서 근심하며 데살로니가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며,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될 정도로 모범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1:6~10).

앞서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양육받고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성적 문란, 잘못된 중말론적 신앙은 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주변 지역에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났고, 바울은 더욱더 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들을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여겼다고 고백하는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2:7~8). 바울은 이처럼 그들의 성장을 위해 권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2:11~12).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와 사랑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3:2).

비록 바울 자신은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 그들이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 이겨 내길 바랐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3:11~13).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며 (살전 4~5장)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성적인 면에서 순결해야 하며, 형제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일을 행할 때는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4:1~1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거룩함'입니다(4:3~8). 거룩함이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덕목으로, 바울은 버려야 할 풍습에 대해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열매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맺히길 원했고, 그들의 삶에 사랑과 위로가 샘솟기를 바랐습니다.(4:9~10, 18).

5장에서도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5:6).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규군으로 무장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5:8~11).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라면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버텨 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길 바라며 (살후 1~2장)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성적인 면에서 순결해야 하며, 형제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일을 행할 때는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4:1~1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거룩함'입니다(4:3~8). 거룩함이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덕목으로, 바울은 버려야 할 풍습에 대해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되는 열매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맺히길 원했고, 그들의 삶에 사랑과 위로가 샘솟기를 바랐습니다(4:9~10, 18).

5장에서도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5:6).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규군으로 무장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5:8~11).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라면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버텨 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길 바라며 (살후 1~2장)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그들에 대한 소식을 다시 받습니다. 여전히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1:4).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심판하시고,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1:6~7).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은 공의 실현과 더불어 주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교회에 닥친 위협은 외부적 박해와 환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2:3~12).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2:15). 이는 참된 가르침을 꼭 붙잡으라는 의미로,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어도 복음으로 무장되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길 바라며(살후 3장)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차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3:1~2).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굳건히 지키실 것을 알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합니다(3:5). 이와 더불어 바울은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하며,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며 게으른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3:6~15).

바울이 이 같은 당부를 한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는 노동 자체를 비천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정적인 세계관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스스로가 롤 모델이 돼 그들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3:7~9).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길 바라며 (시편 105편)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열굴을 구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행사들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시인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105:42).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고난이나 박해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를 통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다 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량을 더욱 더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명애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최근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해 가족들과 나눠 봅시다.

2.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제목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슬픔과 분노, 수많은 염려가 일상이 된 시대 가운데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게에 대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며, 복음을 위해 힘쓴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전합니다(2~3절). 이후 계속된 권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타인을 위해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4~5절).

또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확신을 전합니다(6~7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모든 일에 자신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9절).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겪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합니다. '관용'이란 박해에 대해 온유하며,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관용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도 염려할 일이 생기면 쉽게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의 감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되고, 기쁨과 관용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동치는 감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기쁨 대신에 우울하며, 관용 대신에 분노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우울, 분노, 염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쁨으로 기쁨, 관용, 평안을 유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고 있다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서는 걱정과 염려 대신 참된 평안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1:1~5

내용관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담긴 편지를 전한다. 그들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셨음을 강조하며, 사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연구와 묵상

1.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된 성도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됐다. 바울은 이를 일컬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2절)라고 극찬한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2.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5절)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본받아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이 표현했다.

느낀 점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영적 부모로서 환난 중에도 다른 지역에까지 본이 된 그들의 소식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바울과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복음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나 자신의 영적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다. 말씀의 실천보다 더 큰 영적 성장은 없기에 이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결단과 적용

1.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내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태신자로 걱정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 약속을 잡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
2. 몇 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경희 언니에게 수요일 배를 함께 드리자고 권면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
 - 이혜경집사

내용관찰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3절)
2.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 대해 확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4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을 안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느낀 점

4. '믿음, 사랑, 소망'이 '역사, 수고, 인내'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에는 '믿음, 사랑, 소망'의 영역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참조 행 17:1~15). 하지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 내기 위해 수고했고, 바울에게는 성도들의 이 같은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2절).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3절).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참조 고전 13:13; 갈 5:5~6).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무형적인 덕목들을 '역사, 수고, 인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들을 삶으로 구현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내 삶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역사, 수고, 인내'로 드러날 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골방기도 내 안에 허락하신 믿음, 소망, 사랑이 삶에서 풍성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소서

-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
으니
-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
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이 되었느니라
-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
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
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 9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
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
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내용관찰

1. 데살로니가교회가 다른 지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7~8절)
2.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해 들은 소문은 무엇입니까?(9~10절)

연구와 묵상

3.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증거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다른 지체의 헌신이 내게 도전을 준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소식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쓸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었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었는데, 이 두 지방은 남과 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기에 바울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8절). 그는 데살로니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다른 곳에서 힘겹게 신앙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듣고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9~10절). 그 소문은 살아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하지 않아도 각지로 퍼져 나가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과 믿음도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내 삶과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소서.

-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
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
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
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
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용관찰

1.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심한 고초를 겪은 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
2.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해 헌신한 동기는 무엇입니까?(4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은 왜 핍박을 받은 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목숨 걸고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헌신했던 일 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동기가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중 바울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도(참조 행 16:16~24), 또다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가 없다고 말합니다(3절).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4절). 복음 안에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맛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안다면, 나 역시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즐거워합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이 증언하시느니라
-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됴이라

내용관찰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5~6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어떤 심정으로 섬겼습니까?(7~8절)

연구와 묵상

3.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듯이 섬겼다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목숨까지 내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까지 실천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삶으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5절). 바울은 자기만 족과 이익이 아니라, 오직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8절). 바울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7절). 이 말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격과 삶,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나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바탕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영혼을 위한 사랑과 헌신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섬기는 법을 온전히 배우는 결단과 실천이 오늘부터 내 삶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복음 전파의 사명뿐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영혼을 품게 하소서.

-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용관찰

1. 바울은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9~10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했습니까?(12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자녀를 양육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긴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각각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 경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공동체를 섬기려면 어떤 섬김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9~10절). 바울은 또 자신과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권면과 위로뿐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성장하며,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11~12절). 자녀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면, 위로, 경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같은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 경계에 힘쓰며 섬겨야 합니다.

골방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 경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 13 이렇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 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 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내용관찰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2.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15~16절)

연구와 묵상

3.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를 보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를 칭찬한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예배 시간이나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합니까?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1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참조 갈 3:26).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지자들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여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자신을 채웠다고 지적합니다(15~16절).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않을 때,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말씀을 받는 일에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내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 가족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족 모두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바울은 빌립보에서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3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했기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유모처럼 사역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 마음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7~8절).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섬겼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능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감언이설이나 야만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추는 것과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고난을 이겨 내는 힘이 됩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바울의 충정은 우리가 따라야 할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역한다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유혹에 빠진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울을 거울삼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좇으며, 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라
- 1 이렇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데살로니가전서 2:17~3:4

내용관찰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자, 영광이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칭찬한다. 바울은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위로하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연구와 묵상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가기를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얼굴보기를 힘썼다고 말함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그만큼 바울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기신 것과 같은 열정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다.
2.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바울에게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당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연약한 성도들도 많았다. 따라서 디모데를 통해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겠다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먹이는 작업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목적도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위로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느낀 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약 3주)을 보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나 역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통해 위로하며, 나누는 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 이와 같은 노력은 등한시했음을 회개한다.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가 돼 나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데에도 더 큰 힘을 쏟도록 노력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와 약속을 잡고, 토요일전 새벽예배를 통해 배운 브릿지 전도법을 직접 실천해 보겠다.
2. 같은 다락방 순원들에게 훈련 시간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서적을 선물하겠다.

- 최연이 집사

내용관찰

1.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2:19~20)
2.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3:2~3)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려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려 힘쓴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때였습니까? 주위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약 3주를 보냈습니다(참조 행 17:2).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라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2:20~3:2).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말은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워 주는 동시에 복음만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복음은 연약한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참조 롬 16:26~27). 따라서 나 역시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 5 이렇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 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 7 이렇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 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관찰

1. 데살로니가교회를 방문한 후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6절)
2.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7~10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도 밤낮으로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할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참조 행 18:1, 5a). 디모데의 보고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며, 그들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6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누립니다(7~9절). 아덴에서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로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야로 간구합니다(10절). 이는 성도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오직 성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온전한 섬김을 행하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내용관찰

1. 바울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계하며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3~6절)
2.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7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잘못된 사회 문화나 전통을 극복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1절).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3, 7절).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는 혼외정사를 제사 의식으로 삼는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사회적으로 성적 타락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3b~6절). 성적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타락과 연결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지켜 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구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용관찰

1.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9~10절)
2. 바울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까?(11~12절)

연구와 묵상

3.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위해 힘쓰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권면한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일상에서 소홀히 하고 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상과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9절). 그들의 사랑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방(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뢰아 등)으로 흘러갔습니다(10절). 사실 데살로니가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기에 이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족과 생업을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종말론으로 무절제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힘써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11절).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는 당연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항상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 있는 곳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이웃들이 일상의 내 모습을 보며 도전 받게 될 것입니다.

골방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늘 일상의 삶에 집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용관찰

1. 바울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니까?(14, 16절)
2.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니까?(15절)

연구와 묵상

3.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영광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영원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도 영원을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불신자와 같은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13절).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14절). 모든 성도는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주를 영접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삶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을 꿈꾸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내용관찰

1. 바울은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설명합니까?(2~3절)

2.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주의 날을 맞이해야 합니까?(6절)

연구와 묵상

3.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깨어 있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을 지켜 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때를 알 수 없듯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방심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모가 느끼는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2~3절).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면 빛 가운데서 늘 깨어 준비해야 재림의 때가 이르러도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6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며(8절), 성령 충만한 상태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나눠 봅시다.

2.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잠을 자는 것이며,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족 모두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기초로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심 주제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일어나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14~16절). 그리고 이후에 살아아 있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에 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17~18절).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도의 죽음'에 대해 세 번이나 '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 '눅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창 47:30; 신 31:16; 고전 15:18). 바울 역시 본문에서 미래에 있을 부활을 염두에 두고,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재림의 때가 오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어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았고,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역시 이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잠과 같으므로 반드시 주님께서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종말론적 신앙을 믿음의 기초로 삼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이 같은 모습을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
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끼리 화목하라
-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
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
람에게 오래 참으라
-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
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
상 선을 따르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데살로니가전서 5:12~15

내용관찰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들에게 존경과 각별한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고하며 화평하게 지내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고 당부한다.

연구와 묵상

1.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는가?
 -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때문에 이같이 권면했다. 또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성장을 위해 서로 용납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목함으로 모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랐다.
2.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마5:39), 악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롬 12:17).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토대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간에 악을 악으로 보복해 화목을

깨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다. 바울은 바로 이 길 만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화목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같이 권면했다.

느낀 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비교적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최근에 내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됐다.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지켜 내지 못했다. 내게 닥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인내하며 선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입장만 바라보며 힘들다는 핑계를 댔었다. 또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노력하지 않았음을 회개한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목회자들을 더욱 온전히 섬기고, 직장 상사들에게도 선을 베풀도록 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제자반 담당 목사님께 지난 1년간 섬겨 주신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표현하겠다.
2. 직장 상사들에게 손 편지를 써서 관계 회복을 이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까지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 권명희 집사

내용관찰

1. 주 안에 형제 된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13절)
2.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4~15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권면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반응했습니까? 삶 속에서 겪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관한 교훈을 전한 후 (4:13~5:11),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일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화목의 대상은 성도를 넘어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5절, 참조 눅 6:27~28).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지만(참조 출 21:22~25),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 역시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해타산적인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천국에 소망을 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됐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악을 악으로 갚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인지 돌아봅시다.

골방기도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둔 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게 하소서.

- | | |
|----------------------------------------------------------------------------------------------------------|--------------------------------------------------|
| 16 항상 기뻐하라 |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
|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라 |
|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에게 문안하라 |
|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
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
|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
고 | |
|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 |
|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
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
노라 | |

내용관찰

1.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6~18절)
2.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23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이 흠 없기를 바라십니까?

느낀 점

4. 바울이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억지로 견디기만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16~18절).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혼란한 마지막 때라 해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때 자신의 백성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힘입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뤄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삶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
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에게 있을지어다
-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
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
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
히 사랑하노라
-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
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
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
라

내용관찰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3절)
2.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자랑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연구와 묵상

3.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고난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에서 고난이 나를 연단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졌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지 1년도 안 돼, 데살로니가후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핍박 속에서도 더욱 자라났고, 성도간에 불화 없이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3~4절).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이런 인내와 믿음에 감사하며, 가는 교회마다 이들의 모습을 자랑했습니다(4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참조 빌 1:27~28).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는 도구로 인지하고,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공동체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져 모든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 이 같은 성장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골방기도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내 믿음의 용량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 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 11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용관찰

1.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6~7절)
2.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악인과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8~10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 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까?

느낀 점

4.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영역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바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악인은 번영과 안락을 누리는 반면, 의인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심판하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6~7절).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복음을 대적하던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히 멸망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8~10절).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영광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이 변화됩니다(참조 빌 3:21).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의 기준임을 믿으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공의를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관찰

1.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경고합니까?(2~3절)
2.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연구와 묵상

3. 진리와 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협하는 요인은 외부적 박해와 환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 즉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1~2절).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법과 도덕에 대항해 그것을 폐지시키려는 무법자로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짓으로 모방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9절). 바울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는 이유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10, 12절). 만일 내가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비결은 불법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의와 진리를 더욱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관찰

1.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 관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3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15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진리를 굳게 붙잡는 전통을 지키도록 권면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전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온전히 이루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압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13절).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으로(14절),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통을 온전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15절). '전통을 지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진리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며, 위로하셔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17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환난과 핍박, 거짓 가르침과 사탄의 미혹,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진리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진리의 계승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 은혜나누기
1.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2.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한 것처럼 재림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인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정이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며, 그들이 받는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공의로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4~5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전합니다(9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고 공의로운 자들은 억울함을 겪는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형벌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일들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인내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불평불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계획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 | | |
|------------------------------------------------------------------------------------------------------------------------------------------------------------------------------|------------------------------------------------------------------------------------------------------------------------|
| <p>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p> <p>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p> <p>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p> | <p>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p> <p>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p> |
|------------------------------------------------------------------------------------------------------------------------------------------------------------------------------|------------------------------------------------------------------------------------------------------------------------|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내용관찰

바울은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 능력있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알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권면했다.

연구와 묵상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바울은 이미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과신한 적이 없다. 오직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기에 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다. 바울은 한 순간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전해지기를 간구했다. 그는 자기 부인을 바탕으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2. 바울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말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늘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특히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큰 역경과 고난 앞에 힘들게 살아갔다.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더하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다.

느낀 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와 내 기도를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행동은 나 자신을 너무 믿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바울처럼, 나도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기도제목을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나누도록 하겠다.

결단과 적용

1.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품은 태신자를 위해 매일 아침 6시마다 기도하겠다.
2. 내 기도제목을 편지 형태로 정리해 다락방과 제자반 집사님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다.

- 허은희 집사

내용관찰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2.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5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고난 중에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바울의 기도 부탁과 확신에 찬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된 적은 언제였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복음을 반대하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1~2절). 아울러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3~4절). 바울은 주님을 '미쁘다'라고 표현하며, 바로 이 같은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복음을 지키실 것이며, 모든 악한 상황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현재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인내에 동참하면서 묵묵히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골방기도 현실의 상황과 고통에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용관찰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내의 어떤 사람들을 책망합니까?(6, 11절)
2.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보여 준 생활의 모범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0, 12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조용히 일해서 자신의 양식을 먹으라고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며 교인들에게 모범을 가르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게을러서 미뤄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버리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대접과 호의에 편승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합니다(6, 11절). 바울이 이런 삶을 경계했던 이유는 그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만큼 육체노동을 비천하게 여기는 사회 관념이 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현실에서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태도에 바른 이정표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도 직접 밤낮으로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8~9절).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스스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10, 12절),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는 삶에 대해 바로잡고자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혹시 땀 흘리며 일하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내 안에 노동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회개와 동시에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게으른 생각과 태도를 떨쳐 버리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게으른 마음을 떨쳐 버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소서.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내용관찰

1. '예수'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21, 23절)

2.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24~25절)

연구와 묵상

3. 요셉은 왜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습니까?

느낀 점

4.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파혼을 통보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18~19절).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선포했고, 이름을 '예수'로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20~21절). 또한 이 모든 일이 말씀에 대한 성취임을 밝히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23절), 정리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 내실 자' 이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24~25절).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부정했다면, 그는 모든 역사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구주 탄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요셉의 순종을 교훈 삼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내용관찰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3~15절)
2.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16, 18절)

연구와 묵상

3. 바울이 게으른 자를 부끄럽게 하되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권면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직장 and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기에 앞서 삶을 규모 있게 사는 자들에 대해 '선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13절). 여기서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일상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기에 낙심치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깨닫도록 부끄럽게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14~15절). 교회는 게으른 자들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평강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같은 규모 있는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 4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 5-6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 7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 9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용관찰

1. 시인이 자랑하는 것과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3~6절)
2.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8~11절)

연구와 묵상

3. 시인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한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시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령형 동사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얼굴 구하기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3~6절). 이처럼 시인이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눈에 보이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변함없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8~10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께서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시인은 조상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세워 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리라는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이 같은 고백이 가능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골방기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 12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 13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 14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 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 16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 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 18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 19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 21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 22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 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내용관찰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까?(14~15절)
2. 시인은 종으로 팔린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17~22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앞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누리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시인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회상합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 주셨습니다(참조 창 20:14~16).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라고 지목하셨음을 강조합니다(15절).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세우시고 선택하셨습니다(17~22절).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흉년을 대비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17절) 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록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앞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방기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송축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바울은 재림을 잘못 이해해 오늘을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위의 본이 되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할지 함께 나눠 봅시다.

2. 최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족 모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기대로 게으르게 행하거나 일하지 않는 생활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 스스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야로 일했다고 전합니다(6~8절). 자신들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기에 양식을 위해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자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이같이 행한다고 설명합니다(11~12절).

바울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간혹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말세라는 이유로 흥청망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결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늘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 24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 25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 26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 27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 28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 29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 30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 3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 32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 33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 34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 35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 36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내용관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 그들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행하게 하셨고, 이 표적과 징조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다.

연구와 묵상

1. 시편 105편의 역사적 배경과 시인이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
- 시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에 대해 노래한다. 이를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번성케 하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일, 그리고 보여 주신 표적과 징조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선포한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뤄졌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래로 고백했다.
2.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고 노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시인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노래한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정결한 백성

의 모습으로 다듬기 위해 때로는 기근이 일어나게도 하셨고, 양식도 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오히려 더 큰 구원 계획을 그려 가셨음을 알 수 있다.

느낀 점

하나님께서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셨다. 사실 나는 제자 훈련을 받기에는 많이 분주했고 부담이 됐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그 이후 새로운 일을 위해 시험 준비를 하며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소홀하시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내가 바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한다. 잠잠하신 가운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겠다.

결단과 적용

1. 가정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하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
2. 나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 문자를 보내겠다.

- 이지은 집사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24~25절)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6~27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최근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시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24~25절).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활한 방법으로 포학하게 다루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26절).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징조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생생히 보여 주셨습니다(27절). 애굽 사람들의 학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백성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대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시인처럼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 37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 38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 39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 41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 42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으로다
- 43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 44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 45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39~41절)
2.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45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느낀 점

4. 율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지키지 못한 말씀까지 순종하기 위해 새해에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시인은 출애굽 상황을 회상하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38절).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이행을 위해, 백성들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39~4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신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일에 신실하기를 바라셨습니다(45절).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만일 부족함을 느낀다면, 2019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기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마음의
문을 열며

간혹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솔직한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사람 사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삶의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무엇을 권면했으며, 이를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2. 바울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했으며, 이 삶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4, 6~7절)
3.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보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입니까?(10절)

-
4.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5. 바울의 삶은 사명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6.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며 기뻐하는 법을 깨닫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뜻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결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자의 삶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복음에 빛진 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의 삶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에게는 분명히 그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바울이 행했던 사명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사역했던 도시는 어디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2절)
2.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인 태도는 어떠했으며, 그들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3~4절)
3. 바울 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7~8절) 또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쓴 이유는 무엇입니까?(참조 살후 3:8~9)

-
4.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 경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11~12절)

 5.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내 수고와 헌신을 쏟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6.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명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사명자의 삶은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서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월이 얼마가 흘렀든지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편의와 유익만을 위하느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권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

마음의 문을 열며

세상은 인간의 성(性)에 대해 거짓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만족스럽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 결국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사탄의 공격과 거짓말로부터 벗어나, 늘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으로 무장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3~6절)
2.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7~8절)
3. 바울은 성적 거룩함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 경계했습니까?(6절) 바울이 이 행위에 대해 경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바울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사람뿐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8절)

 5.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삶을 위해 더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 거룩함과 순결함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더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은 '성적 죄악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니니 큰 문제 없다', '언제든지 이런 죄악은 끊어 낼 수 있다'라는 거짓과 착각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이에 현혹된 성도들은 '도저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체념과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당화 속에 거룩함을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버린 모습은 그 대상을 바꿔 가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은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지켜야 할 특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특권인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

농장성경공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12절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

마음의 문을 열며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일이나 좋은 일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재산이나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녀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과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며 권면하기 위해 모범을 제시해야 하는 자랑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며, 왜 자랑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여러 교회에 자랑했으며, 그 모습을 가리켜 무엇의 표라고 말합니까?(4~5a절)
2.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환난을 이겨 낸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설명합니까?(5b, 7a절)
3.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무엇입니까?(9절)

-
4.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니까? 또한 그들이 환난을 견디는 인내와 믿음에 대한 자량은 사실상 무엇을 자랑한 것입니까?(10, 12절, 참조 고후 4:17; 엡 3:13)
 5. 내가 평소에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겪어야 할 환난과 이를 통해 얻게 될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6. 내가 이룬 성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겪는 환난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누군가가 자랑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은 재산이,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의 가치일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환난받는 일을 자랑하는 이유는 환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평소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게으름을 이겨 내라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는 종종 주어진 일이 하기 싫어 게으름에 빠지곤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만 하거나 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일을 한없이 미루다가 결국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피해를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게으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6절)
2. 게으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말했으며, 이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7~9절)
3.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10절) 바울이 게으른 사람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1절)

-
4.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12절) 그리고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4~15절)
5. 내 게으름으로 인해 공동체의 동료나 동역자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6. 나를 게으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멸시와 비난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형제를 대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가 성실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이겨 내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 게으름을 이겨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게으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제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